박근혜 대통령 당선 광주·전남 지역민 반응

호남고립 위기감 속 "눈물 닦아주는 대통령 되길"

민주당이 지역정치 오랫동안 좌지우지
이젠 호남 대변할 인물·정당 나왔으면

민주당 텃밭으로, 마지막까지 몰표로 애정을 보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개표 초반부터 시작된 문 후보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민주통합당의 주류로 떠오른 친노세력에 대한 염증을 느낀 지역민들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등장을 가장 반겼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후보가 된 영남 출신 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패하고 말아 지역민들 사이에는 고립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번 선거 패배로 호남의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민들은 민주통합당 혁신, 새 인물 발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 등을 바라면서 향후 정치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리지켰지만 결과는 참패=19일 제18대 대선 투표 마감결과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문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문 후보를 더 지지한 곳은 호남 뿐이었다. 호남 유권자들이 또 한 번 '의리'를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인사나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외'된 호남 지역민들은 이 같은 선거결과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상인 박건옥(48·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에는 인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가장 발전이 더딘 이 지역이 또다시 정치권력에서 멀어지면서 후퇴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호남 대변하는 인물·정당 없나=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세가 부각되면서 민주통합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중도세력을 한 데 모아주길 바랐지만 기대는 어긋났다.

대선 투표가 종료된 19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방송 3사 출구조사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호남 민심을 대변했던 호남향우회도 이번 선거에서는 분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호남에 이익될 것이 있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었다.

정성기(51·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런 점이 아쉬웠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투표했지만 앞으로 민주통합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는 다시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자 약속 지켜주길"=지역민들은 박 당선자에 대한 기대도 잊지 않았다. 비록 대부분의 지역민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지만 박 당선자가 호남을 찾아 꾸준히 약속해 온 인사 탕평책, 자동차 100만대 도시 육성, 문화중심도시사업 차질없는 지원 등 지역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바람이기도 했다.

배정자(여·55·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씨는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며 "낙후된 호남을 더 챙겨주는 대범한 대통령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社 또 적발

영광 5·6호기에 694개 납품

원자력안전위

국내 원전부품 제작사 2곳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또 다른 국내 원전부품 제작사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영광 5·6호기에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이하 안전위)는 19일 '원전부품 민관합동조사단'의 품질검증서류 조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은 국내 3개 업체에서 영광 5·6호기에 납품한 총 12품목 694개 부품이다.

이 중 필수냉수계통의 임펠러 각각 2개 품목 2개 부품(안전등급)이 영광 5호기 및 6호기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냉수계통이란 기기 및 시설 등의 적정 온도환경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냉방기에 냉수를 공급하는 제품이다. 현재 영광 5·6호기는 지난 11월 5일 다량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부품교체가 진행 중에 있다.

안전위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도 영광지역 조사단 10명과 안전위 조사단 10명이 참여한 영광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 해당 부품의 교체과정에 참여한 가운데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투표하려 트럭 몰다 70대 노인 치어 사망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양모(71)씨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문모(여·73)씨를 들이 받았다.

문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투표를 하러 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는 문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분있는 아파트 상가 주인 주차 제한 부당"

대법원 판결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아파트 상가 주인이 단지 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시 소재 A아파트 상가동 1층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39)씨가 '주차장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용·승합차 2대만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서 "지정된 승용·승합차 2대에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토록 한 원심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지지분을 공유한 상가건물 소유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뒤 이를 어기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출입을 막았다.

/연합뉴스

나원참 〈8715〉 김종두

대형식당 불 4천만원 피해

19일 오후 2시37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대형 식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식당 건물과 내부구조 등 800여㎡(약 240평)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19에 의해 진압됐다.

내부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은 불이 난 직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 천장에서부터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0대男, "동생 같다" 대리기사 성추행

쌍나팔

○…만취한 상태에서 "동생 같다"며 남성 대리운전기사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작거린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모(44)씨는 이날 새벽 1시15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북구 일곡도서관으로 향하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리운전기사 A(24)씨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것.

○…최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기사가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실수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